

가족친화마을만들기를 위한 모델 및 핵심 요소

A Discussion of the Family-Friendly Village Model and Important Factors

대전대학교 아동교육상담학과

교 수 차 성 란*

Dept. of Child Education and Counseling, Daejeon Univ.

Professor : Cha, Sung-Lan

<Abstract>

A law facilitating a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was legislated in December 2007. According to the law, projects for facilitating a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consisted of a family-friendly working environment, a community environment, and the promotion of a family-friendly culture. There has been much progress in developing a family-friendly working environment through projects such as those advocating for flexible work hours, an employee support system, and child care and a family care support system. However, in terms of a family-friendly community environment project, there was no noticeable advancement. Henc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ways to vitalize the family-friendly village project in terms of the family-friendly community environment project.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A family-friendly village could be structured on the three axes of time, space, and relation. The model of the family-friendly village project consists of the following three steps: motivation, systematization, and participating & practicing. In the motivation step, integration, community, and sustainability were needed as basic ideologies for a family-friendly village. In the systematization step, providing systematic educational systems for residents taking on leadership and activist roles was stressed. In the participating & practicing step, many ways to facilitate residents' social relationships were suggested: starting the project from matters of common interests, making the resolution of families' problems a communal task of the residents, accepting the opinions of various groups associated with the matter, and taking a differentiated project process according to the geographic, socio-economic,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groups. It is strongly suggested that the family-friendly village should be taken as a common functional scheme in every one of eight livable village models because a key factor in a family-friendly village, family care, serves an essential function in any livable village model.

▲주요어(Key Words) : 가족친화(family-friendly), 공동체(community), 마을(village)

I. 서론

1961년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시책으로 가족계획사업이 시작되었다. 그 후 1981년 12월 인구증가억제 정책으로 49개 시책을 새로이 발표하였다.

인구증가억제 정책을 폐지한 것이 1996년도였으며, 불과 10년 후인 2006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13명에 이르렀고,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잠정 집계치는 신생아 466천명 출생, 합계출산율 1.19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이데일리, 2009).

2000년대에 지속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는 현상 자체뿐만 아니라, 진행 속도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 노동시장, 병원 등 대부분의 시설 및 경제시스템들은

* 주저자 · 교신저자 : 차성란 (E-mail : slcha@dju.kr)

기존의 인구통계학적 수치에 근거하여 서비스 공급규모가 결정되어온 상태이고, 급격한 인구변화에 따른 수요-공급의 불균형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사회인구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진행된 가족형태와 가족가치관의 변화는 양육과 부양을 가족복지 기능으로 해결할 수 없도록 만들었으며, 일 중심의 가정생활과 생활문화의 정착은 가족으로 하여금 더 이상 가족복지를 수용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버렸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서 일과 가정의 양립, 아동과 노인 등 가족돌봄의 사회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촉진법이 2007년 12월 14일 제정되기에 이르렀고 지금까지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관련법에 의하면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은 사업영역은 직장환경, 마을환경,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확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에 정책적인 추진실적이 가장 두드러진다. 직장인을 위한 친화적 제도로서 탄력근로제, 보육 및 돌봄 지원제도, 휴가 및 휴직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 등은 비교적 꾸준히 진척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족친화 기업 인증제가 실시되고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제도를 비롯한 5개 범주 및 가족친화제도 실행 효과 영역으로 구성된 가족친화지수를 개발하여,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증(가족친화지수 웹시스템)을 실시하며, 우수한 가족친화기업에 대해 표창도 수여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가족친화마을환경을 위한 노력은 2006년 당시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형 마을 3곳을 시범 조성키로 한 (여성가족부, 2006) 이후 뚜렷한 변화를 찾아보기 힘든 상태이다. 가족친화마을은 2006년 행정자치부가 주관부처로서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삶의 질 저하에 대한 대책으로서 추진하였으며, 제시된 9개 모델 중 '가족형' 모델로서 추진한 것이다.

가족형 외 다른 모델 유형의 경우, 강원도 철암의 예코뮤지엄을 중심으로 한 마을, 대구 삼덕동의 담장허물기로 시작된 살기좋은 마을(행정자치부, 2007), 경기도 용인의 느티나무도서관이 중심된 마을공동체(박영숙, 2003) 등 성공한 사례들을 여럿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가족형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시설지원, 돌봄기능이 제공될 수 있도록 체제의 확립 및 운영 지원이 전제되어야 하며, 다른 모델들이 지역의 지리적, 사회경제적 환경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특성화를 지향하는데 비해, 가족형 모델은 가족돌봄이라는 보편적 문제로 접근하기에 지역주민의 자발적 유도를 이끌어 내기에 어려운 면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1990년대 이후 추진되어 온 지방자치화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도적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복지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지방정부의 재정규모나 지역사회 자원으로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

(정민자, 2006:392)가 있고, 따라서 지역주민 자체가 지역자원(송혜림, 2006:3)으로서 지역복지자원의 양적, 질적 증대를 기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이러한 지역의 상황은 과거 관주도의 하향식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주민참여, 주민주체로부터 시작되는 상향식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가 당연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가족형의 살기좋은 마을로서 가족친화마을 만들기 역시 지역에서 이끌어가야 할 관심 영역이다.

지금까지 가정학분야에서 진행되어 온 관련 연구들로는 가족친화적 기업정책에 대한 이론적 검토(최성일·유계숙, 2006; 정영금, 2002), 가족친화적 직장환경이 삶의 질(유계숙, 2008 a; 최성일·유계숙, 2007) 또는 일-가족 갈등에 미치는 영향(이세인 등, 2007), 가족친화제도 이용(장희정·이기숙, 2008; 유계숙, 2008b; 한지숙·유계숙, 2007),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를 위한 지표개발 연구(유계숙·전혜정, 2007) 등 대부분 가족친화 직장환경에 대한 것이다. 가족친화 마을환경과 관련된 연구로는 유아품앗이의 실천사례와 가족친화마을을 연결짓는 연구(차성란, 2009)가 있으며, 가족친화마을의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홍승아 등, 2007; 보건복지가족부, 2009)가 있는 정도이다.

가정학 이외의 분야에서는 행정자치안전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라는 단위사업의 효과성을 위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모델 유형화(행정자치부, 2006),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의 사례(송미령 등, 2006; 서철모, 2009) 측정지표(차미숙, 2007), 추진전략(마상열, 2007) 등을 다루고 있어 가족형 모델로서 가족친화마을의 조성과 관련된 정보로 직접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친화마을이 성공적으로 조성되고, 마을 내 구성요소들-주민, 시설, 프로그램 등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원들의 마을에서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가족친화마을환경을 성공적으로 조성, 운영하는데 필요한 핵심요소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련분야의 연구가 미진한 상태에서 기초적 연구로서 앞으로의 학문적 연구의 촉진과 정부의 가족돌봄 사회화 실천의지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친화마을만들기를 위한 추진 모델을 제시한다.

둘째, 가족친화마을만들기 모델의 단계별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검토한다.

II. 가족친화마을의 개념 및 기능

1. 개념

법에 제시된 가족친화사회환경의 개념정의를 통해 가족친화마을 만들기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촉진법 제 2조 1항과 4항의 개념정의에 의하면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하며,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의미한다(법률지식정보시스템). 즉 가족친화마을은 가족돌봄의 지역사회 공유와 가족생활환경으로서의 풍요로운 공간환경이라는 두가지 개념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가족부(2009)는 모델 개발 연구에서 가족친화마을을 “아이들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고 어른들이 오래 살고 싶은 마을”이라 정의하였으며, 가족친화 마을만들기란 “주민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가족의 공존과 가족에게 필요한 환경 및 관계를 만들며, 여기에 행정과 지역사회가 지원되는 것”으로 보았다.

홍승아 등(2007)은 가족친화적 지역사회를 ‘가족의 책임 수행과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공간 또는 공동체가 가족책임의 수행과 가족생활을 적극 지원하는 지역사회’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일과 돌봄의 책임을 공유하고, 여가를 함께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살기좋은 마을에 기초가 되는 사상은 90년대초 제안된 근린주구의 개념과 연결된다. 근린주구의 개념은 신도시를 계획하는 도구로 활용되었지만 개념의 출발은 현대도시의 과밀하고 분업화된 사회구조 환경에서 사라져버린 1차적 지역사회(primary community)의 친밀감, 유대감을 되찾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근린주구 개념을 정리한 Perry는 1차 집단의 친밀감이 개인의 사회적 성격과 공동체의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초등학교를 지역사회의 중심에 두어 이를 통한 학부모의 참여를 통해 근린주구를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조재성, 1996). 안전하고 쾌적한 자족기능을 갖춘 물리적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들 사이의 빈번한 사회적 관계를 조장하고, 이것이 지역내 공동체성을 키워줌으로써 안정된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데 목적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나타난 살기좋은 마을은 가족생활에의 지역사회 지원, 함께 나누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공동체성 확보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가족친화마을은 생존해 있는 자신의 현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의 자녀세대들의 가족친화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마을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사회 자원을 세대간 공유한다는 확대된 공동체성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살기좋은 마을로서의 가족친화마을은 ‘다양한 가족들이 가족돌봄을 지역사회에서 공유할 수 있고, 다양한 세대의 쾌적한 거주가 유지될 수 있는 공간과 관계를 구축해가는 마을이며, 좀 더 나아가 함께 나누는 삶의 방식을

통해 미래 세대의 질적인 삶까지도 보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삶의 기반을 구축해가는 마을’이다.

2. 기능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7)의 연구는 마을만들기를 지역성, 상호작용, 유대감이라고 하는 세 개의 차원을 토대로 마을에 거주하는 기능, 근로의 기능, 여가의 생활공간 기능을 만드는 과정이라 정의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독일의 사회지리학자들은 주거, 노동, 구매, 교육, 여가, 공동생활, 교통 등 7개 기능을 기본기능 또는 존재기본기능으로 제시하였다(마이어 등, 199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에서 재인용).

이러한 개념의 뿌리가 되는 근대도시계획현장으로서의 아테네 현장(1933)에서는 거주, 여가, 근로 및 교통을 도시의 주기능으로 제시하였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에서 재인용). 그러나 일본의 다무라 아키라(1995)는 마을만들기를 ‘기능 만들기’ 차원을 넘어서 개성, 매력, 활력, 의식, 이미지 만들기 로 파악하고 있다.

여성부가 제시한 가족친화마을의 모델(<표 1> 참조)은 거주 환경, 경제환경, 그리고 여가환경의 세 기능적 요소로 구성된다. 거주환경으로는 가족구성원들이 필요한 시설을 보행권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마을내 녹지면적을 확보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소통과 돌봄의 지역공동체의 특징을 들고 있다. 경제환경에서는 육아, 부양 등 돌봄의 사회화로 여성의 경제활동기회 및 여건 증가, 시설정비를 통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가환경으로는 가족단위 여가활동이 가능토록 시설 및 프로그램 제공을 제시하였다(행정자치부, 2006).

한편 부천시 고강동을 비롯하여 전국 5개 마을만들기 사례에서 보여지는 주민들의 원하는 살기좋은 마을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가까운 곳의 시설, 둘째, 아이들의 안전한 놀이공간, 셋째, 도서관이나 동네극장과 같은 문화시설, 넷째, 노인들의 일거리 및 여가공간, 다섯째, 지역중심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 여섯째, 가족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창구, 일곱째,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기회, 여덟째, 친환경적 생활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 등이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고양시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런 마을에 살고 싶다’라는 주제의 워크숍에서 나타난 결론은 첫째, 문화공간이 많은 마을, 둘째, 인라인스케이트로 이동가능한 마을 셋째, 조용한 거리. 넷째, 아이들이 흠놀이 할 수 있는 마을, 다섯째, 불법주차 없는 마을 여섯째, 나무가 많은 마을. 일곱째, 음악회를 열 수 있는 마을 여덟째, 정겨운 이웃이 있는 마을. 아홉째, 박물관이 있는 마을. 열째, 도서관이 많은 마을 등으로 나타났다(김미영, 2004).

<표 1> 살기좋은 마을의 영역별 구성요소에 따른 가족친화마을 모델의 사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가족친화마을 모델에의 적용
구 분	구성요소	
안락하고 편리한 거주환경	주거, 교육, 의료, 복지, 안전,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시설의 보행거리 내 이동 - 위계별 녹지 공간 - 보행 및 자전거 도로 연결망 - 마을의 공동체 생활을 지원하는 물리적 환경 - 육아 및 노인 돌봄을 위한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 마을 공동체 생활을 통한 가족내외 소통 및 관계 증진
경쟁력있는 근로환경	기업, 근로, 지원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환경 개선으로 인한 인구 유입 - 가족돌봄 부담 감소를 통한 여성경제활동참여의 증가 - 마을환경 조성에 따라 마을 내 일자리 창출 - 가족친화적기업환경 조성으로 근로자만족·기업생산성 증가
쾌적하고 즐거운 여가환경	문화, 예술, 경관, 환경, 위락, 스포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외 가족여가시설 환경 조성 - 마을내 여가활동을 통한 관계 형성 - 보행 위주의 시설 이용을 통한 운동효과 및 건강증진 - 다양한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 제공

출처: 행정자치부(2006).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모델 유형화 및 공모방안 수립연구를 참고로 제작됨.

가족친화마을은 가정을 중심가치로 생활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으로서 돌봄(양육 및 교육을 포함한)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가정기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여가 및 평생교육 기회가 보장되며, 직업기회가 창출되는 지역사회로서 이를 가능케 하는 시설을 포함한 공간, 시간, 관계의 시스템의 작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을만들기 사례에서는 녹색마을(김미영, 2004; 최시영, 2003), 환경사랑(김경희, 2004), 자연과 사람의 상생(김경화, 2004) 등 녹색환경, 친환경,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III. 가족친화마을 만들기

1. 가족친화마을 만들기의 구조

마을만들기란 우리가 살고 싶은 마을에 대한 소망, 꿈을 그리는 것이며,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것, 손에 닿는 구체적인 존재를 자신의 힘으로 변화시키거나 바꾸어나가는 것(김미영, 2004)을 의미한다. 또한 생활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지역의 기반시설이나 생활환경을 담당해 오던 행정이 각 부서간 상호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오며 따라 교육, 문화, 의료, 복지 기타 생활의 다양한 측면들이 총체적으로 조화된 생활환경 조성을 이루어 내지 못했다. 마을만들기 운동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시민들의 의의제기라 할 수 있다(김미영,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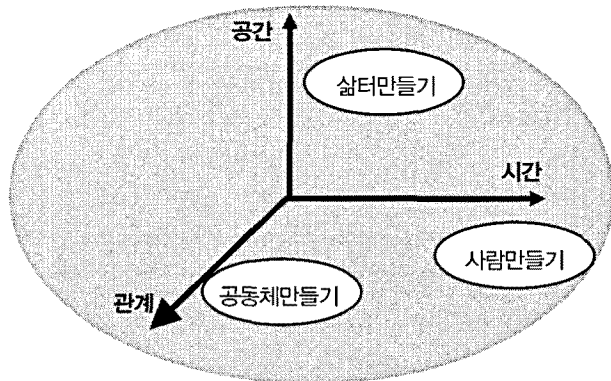
살기좋은 마을로서 가족친화마을이 조성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 행정자치부(2006)는 삶터만들기, 사람만들기, 공동체 만들기를 꼽았다. 삶터만들기란 가족원들의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유지를 위한 공간가꾸기, 일자리, 의료, 교육, 복지 등을 갖추는 것이다. 사람만들기란 마을만들기를 이끌어 갈 현장의 리더 양성과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공동체만들기는 지역내 공동의 문제인식을 시작으로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인식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는 삶을 근거로 하여, 발굴된 리더들이 마치 마을의 기능을 가동시킬 연료를 만드는 것과 같은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홍승아 등(2007)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모형을 지역사회의 철학, 서비스인프라, 참여와 네트워크의 세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지역사회의 철학은 가족친화적 정책 비전을 구체화하는 출구로서 지방정부의 정책철학이 가족의 가치를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이를 정책운영 및 특성화된 정책 집행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함을 내포한다. 서비스인프라에는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지원을 위해 편리성, 안전성, 접근성, 환경친화성을 고려한 물리적 시설 및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또한 운영원칙으로서 경제적 지원, 공간적 지원, 시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와 네트워크는 주체적 마을만들기의 핵심 요소로서 주민협의체 구성, 모니터단 구성, 돌봄공동체, 가족봉사단, 시민단체와의 연계 등의 방법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상 제시된 지역사회 철학, 서비스인프라, 참여와 네트워크 중 지역사회 철학은 지역주민의 내면적 가치로 확립되어질 필요가 있다. 주민들로 하여금 마을만들기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동기화시키는데 영향을 주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가능케 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진행될 때,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모형에서는 가족친화마을로서 갖는 기본적 욕구로서 돌봄의 과제를 주민의 자율적, 자발적 힘으로 해결해 가기 위한 모델로서 보다는 주민을 복지의 수혜자로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성향이 강하다.

<표 2> 가족친화마을만들기 영역별 추진내용

구 분	내 용
삶터만들기	- 일자리창출 - 공간가꾸기 - 의료, 교육, 여가
사람만들기	- 평생학습체계 - 현장리더양성
공동체만들기	- 지역공동체형성 - 공동의 문제인식
운영시스템	- 기획조정 - 협력네트워크(행정/민간) - 행사이벤트
정부의 행정체계	- 법, 제도/조례, 자치협약등 - 추진체계/중앙, 지방간역학분담체계



<그림 1> 가족친화마을만들기의 구조

행정자치부(2007)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틀에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를 시설은 물론, 시간, 공간, 관계의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가족친화마을만들기 역시 시설은 물론, 시간, 공간, 관계의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면,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 지역만들기의 과정을 중시하는 시간, 자연과 녹지확보라는 공간, 이웃주민들 사이의 관계 차원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결국 가족친화마을만들기는 공간, 관계, 시간의 차원을 구조로 하여 삶터만들기, 공동체만들기, 사람만들기를 해 나가는 일련의 연속적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삶터만들기는 일자리창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가꾸기, 교육, 건강, 여가, 복지 등의 가정생활 여건 조성을 포함한다. 공동체만들기는 공간적 요소를 배경으로 주민과 주민, 주민과 기관, 주민과 공간 환경 및 시설 등과의 관계를 통해 공동체성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며, 사람만들기는 참여자들에 대한 교육과 마을만들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리더를 양성해 내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의 진행에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어느 한 시점에서 마무리되기 보다는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마을만들기의 연속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가족친화 마을만들기의 단계

가족친화 마을만들기의 구조를 삶터만들기, 사람만들기, 공동체만들기로 파악할 때,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 지속적인 만들기의 단계별 과정을 이끌어가려면, 가족친화 마을만들기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실질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때문에 가족친화마을을 포함하여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의 핵심 주제는 거버넌스와 연결된다. 중앙 또는 지방정부 주도의 위계적, 수직적, 지시적인 사업진행 방식(류중석 등, 2007)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시킬 수 없고, 사업효율성 및 성과에 있어서도 의문시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최근의 지역사업들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동기화를 토대로 스스로 활동의 주체가 되며, 정부는 단지 행정적, 정책적 지원을 하는 주민주도적인 사업 진행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거버넌스는 국가, 시민, 시장 사이의 상호협력적인 조정을 하는 새로운 방식의 협력형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의 사례에서처럼 거버넌스는 '공식적 권위 없이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자율적, 호혜적 상호의존성을 기반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제도, 조정형태, 네트워크'(우윤석, 2008)라는 개념으로 융통성있게 해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주민주도형의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모델(<표 3> 참조)들을 제시하고 있다. 김선기와 이소영(2007)은 마을만들기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중심으로 단계를 구분하였다. 첫째,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한 인식, 둘째,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 셋째, 주민합의를 통한 마을의 비전 및 목표 수립, 넷째,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 프로젝트 확정, 다섯째, 실행 및 피드백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에 비해 연세대 도시문제연구소(2007)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구성요소를 꿈그리기, 마을보물찾기, 사람세우기, 의제발굴하기, 관계만들기, 민주적 합의체, 더불어나누기의 7개 요소로 제시하고, 이러한 요소들을 합의, 전략·자원·집행, 실천, 평가 및 환류의 진행 절차상 필요한 요소와 결합시킨 7단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7단계는 1단계 꿈그리기, 2단계 보물찾기, 3단계 조직화 및 합의, 4단계 민주적 합의체 및 전략수립, 5단계 실천, 6단계 나눔, 7단계 평가 및 환류의 일곱 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에서 꿈그리기를 제시한 것은 주민들이 마을에 대한 비전을 갖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가족친화마을 모델 개발 연구(보건복지가족부, 2009)에서는 마을만들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주민참여방법을 7단계로 모형화하였다. 첫째, 지역 현안 중 해결과제 제안그룹 등장, 둘째, 계획 및 평가에 주민이 참여

<표 3> 마을만들기 단계 및 활동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마을만들기 단계/활동
김선기·이소영(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인식 -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 - 주민합의를 통한 마을의 비전 및 목표 수립 -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프로젝트 확정 - 실행 및 피드백의 단계
연세대 도시문제연구소(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그리기 - 보물찾기 - 조직화 및 합의 - 민주적 합의체 및 전략수립 - 실천 - 나눔 - 평가 및 환류
보건복지가족부(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현안 중 해결과제 제안그룹 등장 - 계획 및 평가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안사업의 계획수립 - 사업시행 및 보고 - 지역 기관들과의 연대 및 네트워크 만들기 - 마을활동가 지원구조 만들기 - 마을만들기 비전과 중장기 구상 - 제도화
이명규(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능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발굴 -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보급 - 마을 현황과 비전 - 친환경적 마을기능 개발을 위한 자문 - 시스템 개발-주민자치교육, 공동체교육, 주민과 행정의 증대
다무라 아키라(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질적 요소 만들기 - 일자리만들기 - 생활만들기 - 시스템 만들기 - 규칙만들기 - 사람만들기 - 행사진행하기

<표 4> 가족친화마을만들기 모델-단계 및 활동

동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의 비전 만들기 - 주민과 지역의 특성 파악하기 - 마을 현안 문제의 합의 - 세부 실행 목표 수립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개발 및 조직화 - 합의체 만들기 - 민관네트워크 만들기 - 주민과 리더양성을 위한 교육 - 전문가 자문 - 행정지원
참여와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 참여와 네트워크 - 실행 - 피드백

하는 제안사업의 계획수립, 셋째, 사업시행 및 보고, 넷째, 지역 기관들과의 연대 및 네트워크 만들기, 다섯째, 마을활동가 지원구조 만들기, 여섯째, 마을만들기 비전과 중장기 구상, 일곱째, 제도화로 구성된다.

이명규(2006)의 연구에서는 좋은 동네만들기를 위해 요구

되는 활동을 5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즉 첫째, 동네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시민단체는 젊고 유능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발굴한다. 둘째, 지속적인 동네발전과 제의발견을 위해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 셋째, 동네의 개성을

발휘하는 동네 캐릭터 개발을 위해 마을 현황과 비전의 이슈를 제공한다. 넷째, 인간과 자연이 상부상조하는 친환경적 마을의 기능 개발을 위해 마을만들기에 대한 컨설팅 및 어드바이저 역할을 담당한다. 다섯째, 시스템 개발을 위해 주민 자치교육, 공동체교육, 주민과 행정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다무라 아키라(1995)는 가족친화마을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물질적 요소 만들기, 일자리만들기, 생활만들기, 시스템 만들기, 규칙만들기, 사람만들기, 행사진행하기 등 공간적 요소까지를 포함시켜 제시하였다.

이상의 다양한 마을만들기를 통해 볼때, 가족친화마을의 조성은 첫째, 동기화, 둘째, 체계화, 셋째, 자발적 참여와 실천의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표 4> 참조). 동기화 단계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지역 여건에 맞는 꿈을 그리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인식, 마을 현황 파악, 마을 현안 문제에 대한 합의, 비전과 그에 따른 실행 목표세우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둘째 체계화 단계에서는 조직화 및 사람만들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도출할 합의체 만들기, 주민네트워크 만들기, 참여주민들을 위한 평생학습체계 구축과 마을만들기를 이끌어 갈 리더양성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때 전문가 집단 또는 민간단체의 자문, 행정적 지원 등이 마을만들기의 구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이다. 셋째, 참여와 실천 단계에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그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유지를 통한 공동체성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자신들의 마을만들어가기의 활동을 정리, 보고하며, 피드백을 통해 마을만들기의 구조를 다져나간다.

가족친화마을의 일차 목적은 가족돌봄이 마을 단위에서 분담할 수 있음으로써 개별 가족의 부양기능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마을내 시설과 가족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 외에, 마을내 가족원들 사이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지역의 인적, 물적 네트워크로 자리잡고, 나아가 생활공동체로서의 유대감으로 형성될 필요가 있다. 녹색, 교통, 교육, 여가는 가족원들 사이에 그리고 다른 가족과의 사이에 소통과 관계를 이끌어내기 위한 요소이며, 유대감이라는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내기 위한 요소인 것이다. 그렇다면 가족친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건으로서 지역내 요소들간의 상호작용, 관계, 네트워크는 마을만들기의 핵심이자 가족친화마을을 기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전제조건이 된다.

IV. 가족친화마을만들기 단계별 핵심 요소

가족친화마을만들기 사업이 출발과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 동기화, 체계화, 참여와 실천의 마을만들기 각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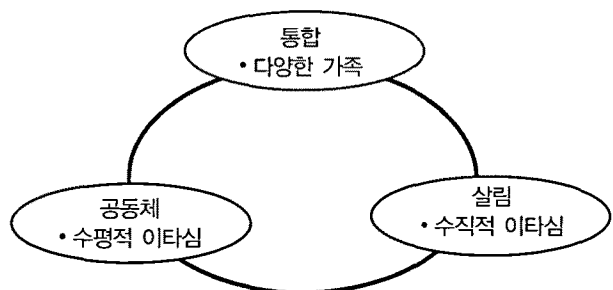
별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가족친화마을의 기본이념은 마을 주민들의 꿈그리기, 비전만들기와 관련하여, 이상적인 마을모습을 그려내기 위해 점검해보아야 할 의식적인 측면에 관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사업의 체계화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와 실천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역의 기관 그리고 마을만들기 리더들이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1. 마을만들기의 동기화 단계-이상적 가족친화마을을 위한 기본 이념

가족친화마을은 통합, 공동체성, 살림의 기본 이념(<그림 2> 참조)이 전제될 때,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의 건강함을 보장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사회가 건강함을 통해 가족친화마을을 지속시켜 나아갈 수 있다.

첫째, 가족친화마을은 통합의 기본 이념을 필요로 한다. 이혼율 증가에 따른 이혼 및 재혼가족, 한부모가족의 증가는 이미 우리 사회의 일반적 가족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09년 말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율 20.1%, 여성가구주 22.1%로 급증하였으며, 부모의 이혼 및 재혼(45.0%), 사망(20.2%) 등으로 지난 10년간 조손가족의 비율이 65%증가하였다. 분거가족도 2008년 기준 16.5%에 이르고 있다(통계청, 2009). 이는 가족원들 서로의 욕구충족을 위한 기능수행에 있어 아내와 남편이 분담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같은 지역사회 내 함께 거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에게 통합은 두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첫째, 가족친화마을에서 함께 거주하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에 대한 이해 및 수용이다.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없이, 주어진 가족환경에 따른 적용의 형태임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다양한 가족구조 하에서 가족원들의 욕구가 불편함없이 충족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기능수행 방식에 대한 공간 및 시설, 시스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이문화간 통합까지도 이어져야 한다. 국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가정도 이들의 가정생활 환경이 상이하다는 측면에서 이해되고, 이들 역시 가족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누릴



<그림 2> 가족친화마을의 기본 이념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가족친화마을은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어야 한다. 가족중심적 이기주의보다 마을공동체를 위한 이타주의, 공익을 우선하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역할로서 가족-마을-사회의 유기적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래세대의 주인이 될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김종경, 2002)를 위한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수행임을 인식하도록 한다. 이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된 건강한 가정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책임에 관한 것으로서 가족친화 마을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역량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서 시민단체 또는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기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의 좋은동네만드는사람들(최봉익, 2001)은 가족공동체-골목공동체-마을 공동체의 위계적 확산 방식을 그들의 주 신념으로 삼고 마을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다. 가족공동체는 골목공동체, 마을공동체의 위계로 확산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가족공동체만들기는 가족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는 민주적 가정을 만드는 일, 또 하나는 이웃과 함께 열린 가정을 만드는 일이다. 이들은 가족공동체 만들기의 일환으로 가족회의 프로그램, 가족 홈페이지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만들기의 거점이자 중심점 역할을 하는 골목공동체 만들기로는 골목회의 프로그램, 골목공원만들기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동네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으며, 동네축제 프로그램은 마을만들기 시작 단계에서 사업을 본격화하는 촉진제로 활용되거나 활성화 단계에서 사업을 가속화시키며, 공동체성을 확보하는데 활용하는 대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이 공동체의 정체성이지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기주의(利己主義)가 드러나게 된다. 이는 인간사회집단에서 당연히 생겨나는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인간본성으로서 수용하고, 이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이기(利己)보다 이타(利他)로 비중을 더하여 가자는 것이 공동체 운동의 출발정신(광주 ywca 좋은동네만드는 사람들, 2001)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가족친화마을은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살림'의 정신을 근간으로 한다. 살기좋은 마을로서의 가족친화마을이 갖는 의미는 따뜻함, 편리함, 풍요로움, 자연친화로 요약될 수 있다(연세대 도시문제연구소, 2007: 9). 이웃과의 교류, 안전한 놀이와 교통, 건강의 지원, 다양한 여가기회와 문화체험 등이 가족원들의 생활을 지지해야 하지만, 세대 간 지속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형태의 삶의 방식으로 유지된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의 삶의 질이라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최병두(2006:523)는 마을 내 주민간 자발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으

로 주민중심의 협치적 거버넌스 전략, 지역공간에서의 정체경제, 사회문화, 공간환경적 요소에 대한 고려, 네트워크축 및 학습조직 등을 지적하면서, 내생적, 친환경적, 지역성을 유지하는 추진목표 수립을 첫 번째 전략으로 꼽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2009)에서도 가족친화 마을만들기의 원칙과 지향점의 하나로 지속가능한 생태계가 기능할 수 있는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을 들고 있다. 이는 정부의 가족정책의 방향이기 이전에 쾌적하고 건강한 삶의 방식으로서 진정한 주민들의 욕구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고양 녹색소비자연대에서 마을의제를 만들기 위한 디자인 게임을 실시하여 얻어낸 두 개의 결과 중 하나는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자연과 공생할 수 있는 생태마을에서 이웃과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싶다는 것이었다(김미영, 2004). 경남 산청의 안솔기 마을 사례는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현대인들의 가치지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마을은 주거환경의 녹색화에서 그치지 않고, 웰빙(well being)에 대한 새로운 가치,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웰빙 가치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서 생태적 마을만들기를 진행시키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집짓기, 생활하수관리, 화장실 등의 내용에 대한 약속을 담아 자치규약으로 만들어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실천하고 있다(김경화, 2004).

2. 마을만들기의 체계화 단계- 인적자원개발하기

마을만들기는 심지어 '마을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만들기'로 간주된다. 마을만들기가 적어도 정부 정책사업으로서가 아니라 주민의 자발적 활동으로 유지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적자원개발이 핵심적 요소이다.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김은희, 2005; 126)으로서의 인적자원개발은 첫째, 마을만들기의 리더를 발굴해내는 과정과 둘째, 활동가로서의 다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과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마을만들기의 리더는 주민들로 하여금 자발적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럿이 함께 일할 줄 아는 인재이며, 변화추진자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스스로 마을만들기에 동기화가 되어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마을의 활동가들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대구의 담장허물기에서 시작된 마을만들기는 대구 YMCA 시민사업국장을 지내던 개인이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을 설득하여 시작되었으며, 이는 꾸러기환경그림대회, 병뚜껍떡화만들기 등 동네골목공원가꾸기로 확대되었다(조득환 임성호, 2003:28-29). 지역품앗이 한발레츠 회원 8명이 준비모임을 결성하면서 대전지역 380여명의 조합원들이 출자하여 주민자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민들레의료생협도 리더들의 자발적 동기화로부터 시작된 사례이다(김성훈, 2003 ;117-121). 이에 비해 지역의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교

육프로그램을 통해 리더 발굴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안산지역에서는 생태교육에 참여했던 20여명 구성원이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환경현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마을만들기의 산과 역할을 한 경우이며(유홍번, 2003: 93). 광주 YMCA "좋은동네만들기" 운동은 YMCA의 회원 8명이 학습공동체 활동을 시작하여, 월 2회 정기적인 공동학습을 한 것이 사업 시작단계에서 큰 힘을 발휘하였다. 광주시 YMCA에서는 좋은동네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좋은동네시민대학을 설립(정의춘, 2007:50),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마을만들기 리더 양성을 시도하였다.

또한 몇 명의 리더가 아니라 활동가로서의 주민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한 것은 마을만들기가 공론화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2007, 한표환: 9) 물론 마을만들기의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널리 인식시키고,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는 실천을 통해 마을만들기를 동기화시키는데는 마을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마을리더에 대한 의존이 지나치게 될 경우, 에너지가 소진되어 더 이상의 추진력을 잃거나, 참여주민의 범위가 좁아 마을만들기의 효율성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주민들이 마을만들기의 적극적 참여자가 아니라 소극적 지지자의 수준에서 머무르는 경우, 사업은 일부 리더들에 의해 결정되고 진행되기 쉽다. 결국 리더들이 그 지역을 떠나면 대부분의 활동들이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되는 것이다(김은희, 2005:125). 이에 안산시 공동체 마을학교,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워크숍(유홍번, 2003:96), 도시연대의 주민참여 마을학교(박종숙, 2001 a:93)등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주민활동가 발굴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러나 마을만들기의 리더를 위한 교육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가 교육이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리더들의 교육이 주민교육으로 확대되거나 일반교육 중 리더가 발굴되기도 한다. 광주의 좋은동네만들기 경우 학습공동체 활동이 좋은동네시민대학으로 발전하여 원하는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맞춤형의 교육으로 발전된 사례이다(정의춘, 2007: 50). 전북 진안의 경우 주민교육에 특히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교육과 개별사업을 반드시 병행하므로써 주민들이 새로운 것에 대한 지식을 수용하고, 자주 모여 토론하면서 주민 사이에 사업에 대한 의욕을 북돋우며, 이 때 리더가 나타나 공동의 힘이 만들어졌다(구자인, 2007: 60).

이상 마을만들기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에서는 지역의 민간단체 또는 행정기관에서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을만들기 교육프로그램은 지역의 리더 및 활동가에게 마을만들기의 필요성을 인식시킴으로써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는 사업에 추진력을 실어주게

되며,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경험 부족에서 올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여줌으로써 마을의 비전과 그에 따른 계획의 달성도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3. 주민참여와 실천을 촉진시키기

가족친화 마을만들기는 주민과 주민, 주민과 기관, 주민과 물리적 환경, 기관과 기관, 그리고 주민, 기관, 정부의 활발한 긍정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지역 내의 사회적 관계는 지역내 구성요소들 사이의 다양한 재화, 서비스, 정보, 정서 자원 등의 교류를 활발하게 만들어주며, 이는 서로에 대한 신뢰, 상호호혜성 등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한다. 본 절에서는 가족친화마을을 조성하는데 있어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주민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활성화하고자 할 때 고려할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족의 문제를 마을의 문제로 만들기

가족의 문제와 무관한 문제를 마을 문제로 공유하기는 힘들다. 우선적으로 가족의 관심사이며, 가족의 쾌적한 거주환경, 가족의 삶의 질과 밀착된 문제를 마을 공동의 현안으로 제기한다. 여러 사례를 통해 볼 때 아동양육 및 교육은 미성년의 자녀를 둔 가족의 주요관심사로서 마을에서 공유하기에 용이한 활동 주제이다. 그러나 마을에 거주하는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고려한다면, 자신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통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공동의 관심사로부터 출발하기

지역주민의 일부라도 그들이 공유할 수 있는 관심사가 있고, 이를 중심으로 사람이 모여져 조직화되고, 활동이 체계적으로 정착되면, 이들의 또다른 공동의 관심사로 활동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성미산마을의 경우도 시작은 아이들의 놀이터인 동네 뒷산을 지키고자 서울시의 배수지 계획을 함께 막아내기 위한 모임에서부터이다. 이는 공부방, 대안학교로 이어지고, 생활협동조합, 동네부엌, 동네 방송국과 동네축제로 연결, 확대된 것이다.

3) 다양한 집단의 이해가 반영, 합의될 수 있도록 배려하기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지역 공동의 목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특정 계층이나 집단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배려되어야 한다(류중석, 송미령, 이성은, 이왕건, 이재준, 2007). 서울시 광진구 노유거리만들기 사례를 보면, 자칫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쉬운 의류상인, 일반상인, 건물주 등이 거리발전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 보도블럭 재질, 색깔,

임대료 상승문제까지 합의한 후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박종숙, 2001 b: 118). 서울시 불광동 연촌초등학교의 통학로 만들기는 '일방통행 반대와 찬성' 입장이 대립되었지만 다른 지역의 통학로 답사, 공개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서로의 입장 차이에 대해 존중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주민 모니터단을 구성(김은희, 2005; 123)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 마을만들기 사례이다.

4) 지역의 지리적, 사회경제적,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사업진행 방식 차별화

보건복지가족부(2009)의 연구는 도시와 농촌, 그리고 마을만들기의 주민주체 형성여부에 따라 가족친화마을 모델을 도시 I형: 기관주도형, 도시 II형: 주민주도형, 그리고 농촌형으로 유형화하였다. 도시 I 형은 마을만들기를 이끌어 갈 주민주체가 형성되지 않았으나 이를 지원할 기관들이 많은 곳이며, 도시 II형은 주민자치기구나 지역 단체 등 주민주체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에 있는 지역, 농촌형은 고령자,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해결 과제를 지닌 곳이다.

행정자치부(2007)에 의하면 도시 및 농촌에 따라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의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도시의 경우, 샵터, 일터, 쉼터의 공유부분이 비교적 적는데 비해, 농촌의 경우, 샵터가 곧, 일터이자, 쉼터인 부분이 많다. 공유부분이 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지역사회 내 머무는 시간이 농촌에 비해 짧다. 이는 마을만들기의 핵심요소인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 및 주민조직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마을만들기의 계획 수립단계에서 미리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된다. 도시와 농촌 모두 맞벌이부부가 많지만, 도시지역의 근무환경이 탄력근무제나 시간제근무와 같은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으로 바뀐다고 해도, 근로시간 외 시간사용 융통성이 농촌에 비해 낮다.

또한 도시지역은 경제적으로 일정 수준에 이른 경우가 많아, 이웃과 지역공동체 형성, 생활환경의 쾌적성에 관심을 갖는데 비해 비도시지역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웃공동체가 있어, 마을만들기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차이를 보인다. 시민단체의 역할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도시지역이 비도시지역에 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체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자치부, 2007).

주택유형으로 구분할 때 단독주택 밀집지역인지, 또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단지인지에 따라 사업방식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육아품앗이 사업 사례를 보면, 아파트단지 거주자들은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이웃끼리 육아품앗이에 참여하기가 쉬운데 비해 단독주택 밀집지역 거주자의 경우, 육아품앗이를 함께 할 이웃을 찾기가 더 어렵고, 육아품앗이를 함께하고 있는 경우에도 서로 거리가 멀

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차이를 보였다(차성란, 2009).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자들은 익명성, 폐쇄성으로 인해 이웃에 대한 무관심, 이기주의, 자발적 참여 거부 등의 특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이기에 함께 풀어야 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때문에 주민들은 같은 고민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예를 들어 관리비 지출에 대한 관리, 음식물쓰레기 처리,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주거환경 등은 지역주민 모두의 관심사가 될 수 있다(박종숙, 2001 c).

마을만들기의 경험적 사례를 통해 보면 주택소유형태에 따른 차이도 나타난다. 임대주택과 일반분양주택이 인접해 있는 관악구 지역의 마을만들기 사례를 통해 보면, 관악주민 연대의 '열린 교실'과 농촌체험활동 프로그램에 당초 계획의 대상이었던 임대주택 거주자의 아동 및 학부모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아, 모집이 되지 않았다. 홍보 포스터를 본 일반주택의 아동과 학부모들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비교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임대주택 거주자들에게는 단기성, 지역을 벗어나는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부모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적합지 않다는 것이 추후에 파악되었다(강인남, 2004).

3. 가족친화 마을만들기에서 고려할 원칙

가족친화 마을만들기는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이라는 가족정책의 일부분으로 시작되었다. 정책평가를 과정평가와 사후평가로 구분할 때, 정책의 집행계획, 절차, 투입자원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의 중단, 축소, 유지, 확대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정책의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등 총괄평가를 하게 된다(유계숙 등, 2008). 그러나 가족친화마을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지속성과 생명력을 가지고 유지되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부 정책 평가나 집행의 틀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첫째, 최종성과물보다 과정에 대한 검토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을만들기는 주민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과정 중심의 활동이며(류중석 외, 2007), 마을만들기를 구성하는 시간, 공간, 관계의 차원에서 볼 때, 전통을 이어가고 만들기의 '과정'을 중시하는 시간 차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결과물로서의 가족친화마을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행정자치부, 2007). 경험사례를 통해 보아도, 광명시의 마을만들기의 경우, 활동의 시작은 마을도서관을 만드는 것이었지만, 아파트 단지 자치 신문제작으로 이어졌고, 이는 자원봉사 강사로 운영되는 자원학교, 마을잔치, 동네어른들의 한문교육으로 확산되고 있다.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도 이 지역의 '마을만들기는 언제나 진행형'인 것으로 인식한다(강찬호, 2004).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살기좋은 지역의 이상적인 모습은 개인의 선호나 시대적 변화를 통해 끊임 없이 달라질 수 있다. 성과중심의 정부주도적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이 장기적인 비전하에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세부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류중석 등, 2007). 실제 마을만들기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주민주체가 형성되어 사업을 발전, 안정화시키기까지 평균 10여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셋째, 지역주민의 자주적 해결 방식이어야 한다. 가족돌봄의 경우, 그동안 개별가족이 사적인 가족복지의 방식으로 해결해 왔다. 때문에 일-가정양립과 가족친화적 정책에서는 가족돌봄을 사회가 분담하고 공유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또 요구하고 있다. 이는 자칫 정부의 일방적, 수직적 가족돌봄 지원정책이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자치제는 지역복지를 요구하며(송혜림, 2006), 이는 정부의 정책지원을 기반으로 주민들의 조직화된 공식, 비공식의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가족과 지역사회의 요구가 충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지시가 아니라 지원이 중심이 되는 장기적 행정지원이어야 한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관주도의 마을만들기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를 안산시 경우에서 알 수 있다. 안산시의 마을만들기는 시민단체들이 모여 시민화합추진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공동체운동을 추진코자 하였다. 그러나 시화추의 구성, 회의소집, 운영 등을 안산시가 주도하면서 관 주도적 성격을 띤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로 활동방향 및 사업, 운영, 의사결정구조 등을 민간단체 중심으로 이전하고 행정은 지원역할만 한다는 단서 하에 시화추의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다(유홍번, 2003).

이에 비해 부천시 고강동의 사례는 마을만들기의 주체인 주민들이 마을 변화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거리조성을 위한 설계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다. 테마거리의 방향을 잡기 위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동사무소 등이 모여 토론회를 가졌으며, 토론회 결과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와 놀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테마거리 조성의 방향을 잡기 위해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림그리기를 통한 1차 욕구조사, 이어서 글로 적게 하는 2차 욕구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아이들의 욕구조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간담회, 지금까지의 의견수렴과정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마을축제의 형식을 빌어 아이들이 직접 테마거리를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이리저리 차를 피해 다닐 필요 없는 안전한 거리를 원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강지원, 2004).

좋은 동네만들기의 주체는 주민, 행정,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다. 그러나 좋은 동네 만들기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 한사람, 한사람이 자조(self-help)의 기초 위에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행정, 전문가, 시민단체들이 지원, 협력하는 상호작용이다(최봉익, 2001).

V. 결 론

가족친화마을의 조성은 가족정책에서 전면에 내세우는 가족돌봄의 사회화와 일-가정양립의 목표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는 것이며, 가족정책의 수혜를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면 가족정책의 효율성 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006년 여성부의 가족친화마을 시범사업 실시 이후 3년여가 지난 현재에도 가족친화마을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가족친화마을의 개념과, 구성차원, 마을 개발 모델 등을 검토하여, 가족친화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친화마을의 개념은 가족돌봄의 해결을 일차적 목표로 하며,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성 확보를 통해 다양한 가족, 다양한 세대, 그리고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을을 의미한다.

둘째, 가족친화마을은 주민들의 돌봄, 교육, 여가, 교통, 안전, 건강, 노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마을만들기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시간, 공간, 관계의 차원에서 공간만들기, 사람만들기, 관계만들기를 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정책사업 평가와 달리 가족친화마을의 경우, 마을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접근해야 하며, 정책성과에 기준을 두고, 나타난 결과를 평가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셋째, 가족친화마을 만들기의 추진 모델은 동기화, 체계화, 참여와 실천의 3단계로 구성할 수 있다. 동기화 단계에서는 마을의 주민들이 마을만들기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통합, 공동체성, 살림의 기본이념을 필요로 한다. 체계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의 개발은 마을만들기의 리더와 다수의 활동가로서의 주민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족친화마을의 핵심적 기능인 가족돌봄의 지역사회 공유를 위해서는 주민들 사이의 활발한 사회적 관계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참여와 실천은 가족친화마을 활성화의 핵심적 요소이다.

이에 참여와 실천의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가족의 문제를 마을의 문제로 만든다. 아동의

양육 및 교육, 노인의 부양은 일반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다양한 가족생활주기 단계에 속해 있는 가족의 문제이다. 둘째, 공동의 관심사로부터 출발한다. 이는 다양한 가족의 다양한 문제들 중 공동으로 해결해 나갈 마을의 문제로 합의점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특정 계층의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배려한다. 넷째, 지역의 지리적, 사회경제적,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사업진행 방식을 차별화한다. 도시와 농촌,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밀집지역, 임대주택 밀집지역 등에 따라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물론 가치관과 생활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친화마을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의 9개 모델 중 하나인 가족형 모델에 포함되지만, 다른 8개 모델과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첫째, 가족친화마을의 경우, 일반적인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의 진행과정과 구분되는 점이 있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는 지역 현안을 지역주민들이 찾아내고, 주체적으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여, 그에 따른 계획수립을 진행한다. 이에 비해 가족친화마을은 마을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현안과제가 표면화되어 있다. 즉, 가족친화마을은 지역내 가족돌봄이 지역사회 내에서 비공식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자발적으로, 그리고 국가의 공적 책임을 통해 사회적분담의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가 전제된다.

둘째, 가족친화마을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공동분모로서 진행되어야 한다. 행안부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위해 9개 모델을 제시하였다. 가족형 모델은 그 중 하나이다. 살기좋은 마을은 각 지역환경 여건에 따라 주민들에게 가장 당면한 현안문제를 주민들의 동의하에 사업을 추진할 때 효과적이다. 때문에 산업형, 관광형, 정보형, 생태형 등 다양한 모델 유형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유형의 마을이든 지역주민의 가족돌봄기능의 사회화에 대한 필요성은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다. 지역의 연령별 인구구조에 따라 영유아 및 취학전아동이 많거나 또는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에 맞는 가족돌봄이 외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형 모델에서 지원될 수 있는 여가 및 문화프로그램, 건강, 지속가능한 생태적 생활양식 등은 삶의 질에 있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생활체계의 인프라에 속한다.

셋째, 가족친화마을에서 주민의 공동체적 유대는 그 자체가 마을만들기의 목표이자 마을을 유지하는 중요 매개체이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다른 모델들은 주민의 공동체성, 유대를 통해 지역의 현안문제를 이상적인 방향으로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요한 기능이 있다. 이에 비해 가족친화마을에서의 공동체 유대는 가족친화마을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며, 그 자체가 가족친화기능을 담당한다. 지역내 공동체적 유대를 통해 다양한 정보,

지식, 정서적 자원들이 교환되고 이를 바탕으로 가족돌봄을 위한 돌봄서비스가 주민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방식으로 교환되거나 상호부조가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살기좋은 마을의 한 유형으로서가 아니라 가족복지의 증진을 위해 가족정책 차원에서 모든 마을에 기본적으로 가족친화마을의 기능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인남(2004). 희망을 나누며 하나되는 우리 동네:서울시 관악구 임대아파트 마을만들기 사례. 국토연구원. 국토, 273, 119-123.
- 강지원(2004). 살기좋은 우리동네 36:안전한 거리조성, 주민 모두 한마음-부천시 고강본동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 국토연구원. 국토, 273, 105-111.
- 강찬호(2004). 광명시의 마을만들기는 '현재 진행형'. 국토연구원. 국토, 269, 120-125.
- 광주 YWCA 좋은동네만드는사람들(여음)(2001). 좋은동네 만들기:왜 공동체인가?. 광주:새날출판사.
- 구자인(2007). 기획특집:살기좋은 지역만들기;주민 주도 상향식의 농촌마을만들기-전라북도 진안군의 경험. 한국도시연구소. 도시와 빈곤, 84(0), 55-68.
- 김경화(2004). 살기좋은 우리동네 37:자연과 사람의 상생전략 실현중-경남 산청군 안솔기마을. 국토연구원. 국토, 272, 101-105.
- 김경희(2004). 살기좋은 우리동네 39:맹산에서 꽃핀 지역사랑 환경사랑-성남시 분당구 '맹산 반딧불이 자연학교'사례. 국토연구원. 국토, 274, 140-145.
- 김미영(2004). 살기좋은 우리동네 33:우리가 꿈꾸는 녹색마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요-고양시 일산구 후곡마을. 국토연구원. 국토, 268, 124-127.
- 김선기·이소영(2007). 주민주도형 지역 만들기 추진 모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성훈(2003). 살기좋은 우리동네 24:주민과 함께 일군 "우리 병원"-대전민들레의료생협. 국토연구원. 국토, 259, 116-121.
- 김은희(2005). 살기좋은 우리동네 43:나, 너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드는 살기좋은 동네. 국토연구원. 국토, 279, 122-127.
- 김종경(2002).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작은 실험-춘천시 우두마을. 국토연구원. 국토, 249, 56-60.
- 다무라 아키라, 강혜정 옮김(2005). 마을만들기의 발상. 한림신서, 일본학 총서 81. 서울: 도서출판 소화.
- 류중석·송미령·이성은·이왕전·이재준(2007).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농림부.

- 마상열(2007).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세부추진전략 수립. 경남발전연구원.
- 마이어, J. 외 지음. 박영한·안영진 옮김(1998). 사회지리학. 법문사.
- 박영숙(2003). 작은 도서관에서 마을 공동체 문화를 일구는 사람들. 국토연구원. 국토, 260, 132-137.
- 박종숙(2001 a). 살기좋은 우리동네 1: 내집 마당에서 골목으로, 동네로, 지역으로-대구 삼덕동 골목공동체. 국토연구원. 국토, 236, 104-108.
- 박종숙(2001 b). 살기좋은 우리동네 2: 부족한 문화시설, 우리 스스로 만들어요. 국토연구원. 국토, 237, 111-115.
- 박종숙(2001 c). 살기좋은 우리동네 3: 공간을 디자인하는 주민들-서울시 동작구 사당 3동 양지공원-국토연구원. 국토, 238, 89-93.
- 서철모(2009).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 우수사례. 자치발전, 15(2), 40-46.
- 송혜림(2006). 건강가정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개발의 가능성-주민조직화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0(2), 1-18.
- 여성가족부(2006). 지역단위 '가족친화형'마을 조성한다. 보도자료. 여성가족부.
- 우윤석(2008).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수원:경기도 인재개발원.
- 유계숙(2008 a). 가족친화적 조직문화가 근로자의 일-가족 조화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27-37.
- 유계숙(2008 b). 가족친화제도의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특징.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1), 249-270.
- 유계숙·전혜정(2007).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을 위한 지표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 대한가정학회지, 45(9), 113-130.
- 유계숙·장혜경·전혜정·김윤정·민성혜·박은미·안재희·장보현·한지숙(2008). 가족정책론. 서울:시그마프레스.
- 유홍빈(2003). 살기좋은 우리동네 27:시민단체·행정·주민이 함께 한 안산마을만들기운동. 국토연구원. 국토, 262, 92-100.
- 이명규(2006). 한국의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사례.
- 이세인·이숙현·권영인(2007). 가족의 지원 및 가족친화적 조직 문화가 사무직 취업모의 일-가족 갈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3), 29-57.
- 장희정·이기숙(2008).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기혼 여성의 요구도 실태조사. 한국가족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회지, 13(4), 103-121.
- 정민자(2006). 지역사회네트워크와 건강가정사업. 제 3기 건강가정사 양성교육 자료집, 391-412.
- 정영금 (2002).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을 위한 가족친화적 정책의 적용. 대한가정학회. 대한가정학회지, 40(11), 107-118.
- 정의춘(2007). 마을만들기 운동의 지속화를 위한 광주시의 단위 네트워크 구성과 주민교육 사례. 도시와 빈곤, 84호, 47-54.
- 조득환, 임성호(2003). 대구시 담장허물기운동의 확대방안. 대구경북개발연구원.
- 조재성(1996). 현대 근린주구이론의 개척자 페리·스타인·라이트. 국토연구원. 국토, 176, 80-87.
- 차미숙(2007). 살기좋은 도시의 측정지표와 적용: 미국 331개 도시권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국토, 303, 96-108.
- 차성란(2009).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동육아품앗이 실천사례. 한국가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최병두(2006). 살기좋은 도시를 위한 지역공동체 복원방안. 지리학 연구, 4(4), 513-528.
- 최봉익(2001). 살기좋은 우리동네 9: 좋은 동네는 좋은 가정에서 출발합니다-광주 YMCA 좋은동네만드는사람들. 국토연구원. 국토, 244호, 57-63.
- 최성일·유계숙 (2006). 일-가족 조화를 위한 가족친화적 기업 정책의 발달단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4), 51-73.
- 최성일·유계숙 (2007). 가족친화적 기업정책이 근로자의 일-가족 조화, 인적자원성과,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경로모형 검증.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1-26.
- 최시영(2003). 살기좋은 우리동네 21: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녹색마을 만들기 - 충북 청주시 용암동. 국토연구원. 국토, 256, 102-108.
- 한지숙·유계숙(2007). 기혼근로자의 성역할 태도와 일-가족 지향성이 일-가족 갈등/축진 및 가족친화제도 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5), 143-166.
- 행정자치부(2006).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모델 유형화 및 공모방안 수립연구. 행정자치부.
- 행정자치부(2007).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성공메뉴얼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행정자치부.
- 한표환(2007). 특집: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전망과 과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총괄소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56(639), 16-25.
- 홍승아·김혜영·류연규·소마나오코·조순주·진미정 (2007).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모형개발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가족친화지수 웹시스템. <http://ffi.mw.go.kr>
-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 이데일리(2009). 심각한 저출산 200년후 50만명 초미니국가.

2009.10.13.

http://www.edaily.co.kr/News/Economy/NewsRead.asp?sub_cd=IB11&newsid=01984406589852592&clkcode=00203&DirCode=00302&OutLnkChk=Y

통계청(2009). 한국의 사회동향 2009. 보도자료.

<http://www.kostat.go.kr>

접수 일 : 2010년 01월 08일

심사 일 : 2010년 02월 01일

심사완료일 : 2010년 03월 19일